

『제주도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토론문

김 종 찬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학회 50차 학술대회 《제주도의 보전과 개발》, 〈제주도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섹션에 토론을 맡겨주신 제주학회에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저는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특히 문화재 보존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수박 겉 핥기 정도의 미천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자로 지정된 것은 제가 대학박물관에서 학예연구직을 수행하고 있고, 박물관 학예업무 중 박물관에 소장된 유형문화재와 매장문화재의 보전,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뜻으로 저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질의 중에 논지가 흔들리거나 발표자분들을 당황하게 하여도 이점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발표자분들의 발표문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강민혜 선생님은 「제주도 문화유산의 종합적 보존과 관리」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발표문 제목이 제주도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은 유형문화재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의 체계화, 문화재의 보존 및 수리체계의 정립, 문화재의 직접 수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진단은 향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기준 마련에 좋은 자료라 생각합니다.

김익주 선생님은 「제주도 유형문화재의 보존 -목조와 석물을 중심으로-」의 발표를 통해 보존과학에 대한 정의와 역할, 규범 그리고 실제 보존처리 사례를 들어 제주도 문화재에 대한 시급한 보존의 필요성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고영자 선생님은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과 전승보전과 관리」에 대한 발표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중요성, 그 중요성에 따라 개선되는 문화재보호법 소개와 관련 법안을 활용한 무형문화재의 보존방안 검토, 이를 통한 제주도 무형문화재의 위상제고와 활용을 살피고자 하셨습니다. 더불어 현재 제주도 내 지정문화재 현황과 현안에 대한 고민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의 제주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저도 그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김진환 선생님은 「제주도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발표를 통해 현재 제주도 내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종류와 수량,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현황을 일목요

연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매장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단순 현상유지에서 자연 및 인문지리적 경관을 포함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학술적 연구,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셨습니다.

저의 토론은 발표순서와 상관없이 발표자 개별과 전체질의로 나누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선생님께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자연 및 인문지리적 경관을 포함한 역사문화환경은 어떠한 것인지, 두 번째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학술적 연구는 어떤 것인지, 세 번째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적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은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고영자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발표문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현황, 현안은 알 수 있었으나 무형문화재의 활용부분은 차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활용부분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민혜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제주도 내 인문·자연환경을 이해하면서 보존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문화재 수리의 현실적 품셈 마련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 등 인력풀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주도 내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하는지, 혹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공적인 기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김익주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내에서 보존처리가 시급하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져야 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 있는지, 사례로 제시하신 실외에 위치한 유구 이외에 실내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유물 중 보존처리가 시급한 문화재 목록은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존처리 규범에서 ‘보존처리는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하며’, ‘미적·역사적 흔적이 제거되지 않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은 어느 한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이 이루어낼 수 없으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모든 문화유산 관련자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문화재의 가치를 찾고 지역 주민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의 문화재가 내 것이라 느낄 때 비로소 문화재는 전문가 또는 관련 집단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